KIA 정현창 “몸집 불려 기회 잡겠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지난해 NC서 이적 고졸 2년차 강견에 안정된 수비·타격 센스 “힘 키우니 배팅·수비 더 잘돼 1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

KIA 타이거즈 내야수 정현창(왼쪽)이 5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정현창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힘’을 키우고 있다.

올 시즌 KIA 내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던 박찬호가 FA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하면서 내야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또 다른 변수는 김도영의 몸상태다. 김도영이 지난 시즌 세 차례 부상을 당했던 만큼 이범호 감독은 지명타자 자리를 활용해 김도영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찬호와 김도영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KIA는 아시아쿼터 카드를 활용해 호주 국가대표 제리드 데일을 영입했고, 신예 자원들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회의 시즌을 맞은 내야진에서 정현창도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다.

정현창은 지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NC에서 이적한 고졸 2년 차 선수다. KIA는 강견의 전천후 수비수 그리고 타격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정현창을 평가해 영입에 공을 들였다. KIA는 주루에서도 정현창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3일 KIA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인 그는 안정된 수비와 함께 타격 센스를 보여주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정현창은 지난 11월 오키나와 마무리캠프를 통해 KIA 적응을 끝낸 뒤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인 자리 잡기에 나섰다.

지난 시즌 프로 무대를 경험한 그는 ‘몸집 불리기’를 우선 과제로 비시즌을 보냈다.

“쉴 틈 없이 먹고 웨이트 하니까 살이 쪘다”면서 웃은 정현창은 “주위에서 다들 힘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비시즌 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다. 배팅에서도 도움 되고 수비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유격수 자원으로 우선 꼽히는 그는 2·3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수비수다.

정현창은 “유격수를 우선 생각하는데 2, 3루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수비 나가면 실수를 줄이려고 한다. 방심하면 실수하니까 더 집중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비 집중력을 이야기한 정현창은 타격 과제로는 ‘타이밍’을 꼽는다. 이범호 감독이 정현창에게 강조하는 부분도 타이밍이다.

정현창은 “스피드도 생긴 것 같고, 타이밍 맞추는 것도 바꿨다. 힘이 더 잘 실릴 수 있게 연습하고 있다. 타이밍도 괜찮아졌는데 (방망이가) 더 짧게 나와야지 타이밍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다.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며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에 대해 어필을 해야 할 것 같다. 기회를 받으면 안 놓치겠다. 타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쟁쟁한 선배들은 정현창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힘이다.

정현창은 “스프링캠프가 힘들기는 하지만 배울 것도 많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먼저 움직이면서 하려고 한다.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다”며 “(김)선빈 선배님 많이 보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많이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 수비에서 부족한 것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타격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도움이 된다. 안 다치고 캠프에서 잘 준비해서 계속 1군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올 시즌 목표를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

WBC 명단 오늘 발표

KBO는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3월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 C조 경기에 나선다.

C조에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호주, 체코가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이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C조 국가들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SBC) 세계 랭킹은 일본이 1위, 대만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4위, 호주 11위, 체코 15위 순이다.

일본이나 대만 중 최소한 한 팀을 이겨야 8강이 열리는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회 대회에서 3위에 오르고 2009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이후 열린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과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부상으로 대표팀 합류가 불발된 가운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대표팀의 주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지현 감독은 지난달 사이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인터뷰에서 최종 명단 30명에 대해 “투수는 15명 정도를 넣을 것”이라며 “지금 페이스라면 2차 캠프 때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고우석이나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한 김도영(KIA 타이거즈) 등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계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도 이날 명단 발표의 관심사다.

한국계 내야수 셰이 위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과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한국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미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또 외야와 2루 수비 등이 가능한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역시 류지현 감독이 대표팀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5일 불펜피칭을 소화한 KIA 김현수(왼쪽부터) 이태양, 김범수, 이준영이 빗속에서 러닝을 한 뒤 덕아웃으로 이동하고 있다.

5일 비가 내리면서 KIA 내야수들이 실내에서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지진 났어요? …훈련엔 지장 없어요!

아침 일찍 트랙 달리기로 시작…오후 4시까지 로테이션 소화
굵은 빗줄기에 팀 수비훈련 변동…점심 미루고 실내서 집중

땅이 흔들려도 비가 와도 KIA 타이거즈의 질주는 계속된다.

일본 아마미오시마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는 5일 예상치 못했던 지진과 비를 만났다.

이날 새벽 3시 21분 아마미 동북 해역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캠프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깊게 잠들어서 몰랐다”는 네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선수들은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틈도 없이 단잠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KIA는 지난 시즌 아쉬움을 지우겠다는 굳은 각오 속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새 얼굴들도 가세하면서 더 치열해진 경쟁 속 선수들의 긴장감도 커졌다.

KIA의 스프링캠프 공식 스케줄은 6시 30분 아침 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식사 시간에 맞춰 정해영, 이의리, 곽도규 등은 숙소 인근 트랙을 돌고, 사우나를 하는 루틴도 유지하는 만큼 이른 시간 KIA의 아침이 시작된다.

이어 야수들은 8시 30분 야구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빈 틈 없이 훈련 로테이션이 돌아간 뒤 엑스트라조의 훈련까지 소화하면 오후 4시가 가까워진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뒤에는 야간 훈련이 진행된다. 선수들은 달빛 스윙을 하고 섀도 피칭을 한다. 영상 분석 시간도 준비되면서 선수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진에 이어 예상치 못한 비가 불청객이 됐다.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린 이날 KIA는 빗속에서 팀 수비훈련을 소화했지만 스케줄 변동은 불가피했다. 굵은 비 때문에 그라운드가 흠뻑 젖어 정상적으로 타격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결국 KIA는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고 실내에서 수비, 타격 훈련을 집중력 있게 진행한 뒤 훈련을 일찍 마무리했다.

공교롭게도 훈련이 끝난 뒤 비가 개고 해가 나면서 선수들은 맑은 날씨 속 달콤한 오후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wool@kwangju.co.kr